

넓어지는 전선...이스라엘, 레바논 교량 끊고 지상전 확대

네타냐후, 리타니강 모든 다리 파괴 지시 레바논 대통령 "주권 침해, 침공 전단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핵심 기반시설 공습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상전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22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다리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병력과 무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데 활용돼 왔다"면서 "수천 발의 로켓과 무기, 발사대가 이 경로를 통해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군에 리타니강 일대 모든 다리 파괴를 지시했다고 밝혔고, 교량 파괴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스라엘군 수뇌부는 곧바로 지상전 확대 방침도 공개했다.

에일 자미르 참모총장은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은 이제 시작 단계로 장기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체계적으로 조직된 계획에 따라 지상 작전과 공격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에피 테프린 준장도 지상전 확대가 다음주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



22일(현지시간) 이란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레바논 카스미에 인근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습으로 사망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2일 로켓 공격을 시작하자 '헤즈볼라 완전 해체'를 목표로 대대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이번 교량 파괴는 레바논 남부를 사실상 고립시켜 향후 지상작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타니강 교량은 남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이를 차단하면 헤즈볼라의 기동과 보급뿐 아니라 민간 이동도 크게 제한된다.

이스라엘은 이미 국경 인접 마을의 주택 철거와 주민 대피를 추진하며 완충지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동 내 최대의 이란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으로 전쟁이 휘말린 레바논에서는 피

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레바논 국영 매체에 따르면 리타니강의 다리는 심각하게 파손돼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인근 전력망과 상점, 농경지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레바논 보건당국은 최근 3주간 1천200명이 숨지고 100만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대규모 피란이 이어지며 인도적 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리타니강 다리 파괴를 침공 전 단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제프 아운 대통령은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지상 침공의 전조"라면서 "리타니 남부와 레바논 영토의 나머지 지역 간의 지리적 연결을 끊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피해가 커지면서 레바논 내부 갈등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나와프 살람 총리는 이날 아랍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헤즈볼라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 전쟁은 하메네이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것으로, 레바논이 전쟁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사람들은 여권을 위조해 불법으로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레바논 정부는 혁명수비대 활동 금지와 함께 헤즈볼라의 무장 해체를 요구하는 등 강경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종파 갈등과 내전 재발 우려로 실질적 강제력 행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北국무위원장 재추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조용원

"김정은 제일국력"...김여정 국무위서 빠져 선박공업성→제2경제위 선박공업성 개칭

북한이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 교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22일에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이며,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영도자'이다.

2016년 6월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에 올랐던 김정은은 3년 뒤 다시 추대됐고 이번에 재

추대된 것이다. 리일환 당 비서는 국무위원장 선거를 제외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함이야말로 이조선(북한)의 제일국력"이라며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도 경모하며 따르며 숭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의 수장인 상임위원장에 교체됐다.

지난달 말 열린 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중앙위원회와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던 최룡해가 자리를 내려놓았고, 이 자리에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이 선출됐다.

조용원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올라 2인자 자리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부위원장에는 오랫동안 대남 업무를 관장했던 리선권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과 당 법무부장을 맡았던 김형식이 뽑혔다.

과거에도 북한의 명목상 야당이자 노동당의

'우당'인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던 만큼, 리선권도 이런 관례에 따라 부위원장직에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

최룡해 전 상임위원장은 회의에서 임기 동안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했다고 사회를 밝혔는데, 북한에서 이처럼 전임자가 '고별사'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내각 인선도 이뤄졌는데 박태성 총리가 유임된 가운데 신설된 제1부총리 자리에 김덕훈 전 총리가 임명됐다. 김덕훈은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이 공장 현대화 준공식에서 공개 질타를 했음에도 주요 보직에 선임됐다.

내각 인사에서 군수 제품의 계획·생산 등을 관장하는 독자 기관인 제2경제위원회가 언급돼 내각 산하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선박공업성의 명칭이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성'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선박공업성은 내각 소속으로서 민수경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내각 기구이면서도 제2경제위원회 소속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군수경제 기구가 된 것으로, 북한이 해군력 강화를 본격 추진하며 최근 함정 건조에 속도를 내는 정책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에서 김여정 당 부장이 위원에서 빠졌다. 북한 외교의 핵심인 최선희 외무상과 러시아와의 교류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윤정호 대외경제상은 자리를 지켰다.

한편 노동신문은 국무위원의 사진과 직책을 공개하면서 국가보위상이던 리창대를 '국가정보국장'으로 소개했다. 국가보위상의 명칭이 국가정보국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1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재추대

※ 최고인민회의: 남한의 정기국회 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남한의 국회의장에 해당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2026년 3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연말뉴스 사진: 조선중앙TV

문제가 2025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26년 국가예산 등도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 기간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해왔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통일을 거부하고 남측을 '적대 국가'로 규정할 북한이 기존 헌법에 담긴 평화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개정해 구체적인 조문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